



# '함께하는 충북'을 위한 소통의 나들이

## - 「충북바로알기」 과정 -



지난 11월 23일, 충청북도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가족의 충북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한 「충북바로알기」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최초로 충북자치연수원이 주관하여 진행된 본 행사에는 KGS 임직원 30여 명과 질병관리본부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하여 충북 단양군 장회나루 유람선 체험, 청풍문화재단지 견학, 산야초마을 체험 등 다양한 문화탐방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직원간의 소통과 화합, 친밀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색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 [ 몸과 마음에 약이 되는 힐링체험, 제천 산야초마을  ] , ”





이른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본사를 출발, 버스로 한 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산야초마을은 청풍호 가까이 자리한 농촌체험마을로, 인근의 금수산에서 자라는 각종 약초를 이용해 약초 향기주머니, 한방차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약초의 알싸한 향이 풍기는 산야초마을에 모인 KGS인들은 추운 날씨로 움츠려 든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동작들을 배워보며, 각종 한약재의 효능과 설명을 듣고 약초 향기주머니 만들기를 해봅니다. 약초 향기주머니는 약초의 쌉쌀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머리를 맑게 해 방향제로 사용하기에 제격인데요. 잘게 썬 고수, 황기, 정향, 당귀 등을 적당량 모시 주머니에 담고, 예쁜 북주머니에 옮기면 완성된답니다. 겨울철 얼어붙은 몸을 녹여줄 따듯한 썩차를 한잔 마시며 산야초 체험관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해 줄 약초를 구입하고, 친환경식재료로 지은 맛있는 점심식사도 즐기며 오랜만에 힐링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 [ 유람선에서 즐기는 내륙의 바다, **충주호**  ] , ”





식사 후 참가자들은 충주호의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회나루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단양 8경 중 가장 경치가 아름답다는 구담봉과 옥순봉을 유람했습니다. 찬바람을 가르며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광활한 충주호(충주에서는 충주호로, 제천에서는 청풍호라고 불린다)를 따라 쪽 펼쳐진 절경들을 지날 때마다 환호성이 터집니다. 선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카메라 셔터를 설 새 없이 누르기도 했는데요. 1시간 남짓한 왕복 유람을 마치면서 동료들과 함께 유람선 위에서 기념사진도 남겨봅니다.

“ [ 청풍호반의 작은 민속촌  
제천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청풍문화재단지  ] ”





다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은 제천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청풍문화재단지입니다. 충주댐 건설로 제천시 청풍면을 중심으로 한 5개면 61개 마을이 수몰되자, 이곳에 있던 각종 문화재들을 한 곳에 모아 청풍문화재단지를 조성했는데요. 단지 내에는 여러 보물 및 문화재, 생활유물 등이 원형대로 이전 복원되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화재 관람이 가능해 ‘청풍호반의 작은 민속촌’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출입구에 우뚝 솟은 팔영루(八詠樓)를 통해 들어서자 소가 연자방아를 돌리는 모형이 보이고, 참가자들은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한가롭게 견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선 말기 목조 기와집을 복원한 제천 도화리 고가와 청풍문화재단지의 대표적인 유물이자 보물 제528호로 지정된 한벽루(寒碧樓)를 둘러보고 청풍호 주변의 멋진 풍경도 감상하며 지금껏 잘 알지 못했던 제천의 역사와 숨결을 느껴보았습니다.

## 《 INTERVIEW 》

저는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지만, 앞으로 충청도로 이주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천 단양에 개인적으로 놀러 와본 적이 있지만, 오늘처럼 명소들을 둘러본 적은 처음인데요. 추운 날씨였지만 산야초마을에서 한약재에 대한 설명도 흥미롭게 들었고, 장회마루에서의 유람선 투어와 청풍문화재단지 견학을 하며, 국내에 이렇게 경치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신기했습니다. 충북지역 이주에 앞서 미리 이 지역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니다.



KGS 배관진단처 **최희준** 대리



오늘 행사를 주관한 충북자치연수원에서 이전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충북에 소재의 명소, 먹거리, 볼거리 등을 자세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본사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많은 볼거리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가족끼리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또 오고 싶습니다.

KGS 행정지원처 총무부 **강연희** 대리

도내로 이전한 기관에 계신 분들 중 새로 이주하신 분도 있고, 직장만 옮기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려면 어려움이 따르길 때문에 그 동안 기관의 전향 연수원에서 이분들에게 우리 충청북도



도내도 이전한 기관에 계신 분들 중 새로 이루어진 분도 있고, 직장인 옮기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려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교육기관인 저희 연수원에서 이분들에게 우리 충청북도 의 문화도 알리고, 지역에 대한 연대감, 소속감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 교육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행되다 보니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내년에도 도내 공공기관 정부기관 함께하는 본 과정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의 부족한 점을 좀 더 보완해서 이전기관의 임직원과 가족분들께 의미있는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 이혜구 주무관



“ [ **충북혁신도시로의 이주 및 거주 만족도 향상**  
**‘함께하는 충북’의 멋진 미래를 실현하는데 일조하길** ] ”

근무지 근처이지만 평소에 방문할 기회가 없었던 충북지역의 관광명소를 둘러보며 충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몸과 마음까지 힐링할 수 있었던 「충북바로알기」 체험. 금번 행사는 도내 우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공유를 통해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충북혁신도시로의 이주 및 거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 행사가 보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함께하는 충북’의 멋진 미래를 실현하는데 일조하기 바랍니다.

